

협회, 제주지회 설립 - 지방벤처 활성화 사업 가속화 -



협회는 지난 1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벤처기업협회 제주지회 설립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제주지회에 소속된

벤처기업은 박상열 회장(자바정보기술 대표), 조인옥 부회장(비츄얼월드 대표)을 비롯해 모두 12개사다.

이로써 협회는 대구경북지회, 울산지회, 전북지회, 광주전남지회, 부산지회에 이어 제주지회까지 6개 지방조직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방벤처 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회, 잡코리아 공동주최 'e-CEO 토크쇼' 실시



협회는 잡코리아대표 김화수와 공동으로 "2003 '미래와 꿈' e-CEO와 함께"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 임원인 다산네트웍스 남민우 대표와 하우리 권석철 대표가 'e-CEO 토크쇼' 3, 4회에 출연했다.

장흥순 회장 경찰대학서 주제강연



협회 장흥순 회장은 지난 7월 31일 경찰대학에서 '벤처산업과 국가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벤처홍보네트워크 1차 정기세미나

벤처홍보네트워크는 벤처산업의 이해와 벤처기업 홍보방안에 관한 주제로 '제1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개요

- 일시 : 2003. 09. 02(화) 16시 30분 ~ 18시30분
-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
- 주요 내용 : 주제강연 및 벤처홍보스킬 교육 '벤처홍보 AtoZ'

■ 참가신청 방법 및 기한

- 참석 대상 : 벤처홍보네트워크 회원 및 협회 회원사 홍보담당자 (100명 선착순)
- 참가비 : 무료

- 신청기한 : 08. 16(월) ~ 08. 27(금) 12시
- 신청방법 : 홈페이지 (www.kova.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담당자 이메일 송부

■ 문의

- 벤처홍보네트워크 윤보인 간사 (02-6009-4100, 내선 301, E-mail: bony@kova.or.kr)

협회 전북지회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 첫 번째 주자, 하이엘 참여

직장모금운동인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협회 전북지회에서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의 첫 번째 주자로 하이엘(대표 정웅기)이 첫 배 앞을 끊었다.

하이엘은 지난 10여년간 전통 및 생활도자기를 생산하던 세라믹 제조 기초 기술을 바탕으로 1994년 PTC 써미스터와 바리스터를 생산하는 업체로 탈바꿈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기업이다.

